

身隊 모집 감독 지도 帝 戰時內閣 직접관여

동아 1992. 02. 07.

東條 肅軍大臣에 보낸電文 발견

위안부 20명 증원요구 허가 내용

防衛廳 도서관서 자료 47점 나와



東條 日戰時수상

【東京=李洛淵】태평양전쟁 중挺身隊(중공위안부)의 모집 및 관리에 당시 수상 겸 陸軍大臣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도 깊숙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3통의 비밀전보가 6일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이것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수상이 지난날 防衛廳(防衛省) 중공위안부 문제에 관한 1942년 12월 12일(密電)을 陸軍省(陸軍省)에 보낸 것을 원본으로 한 3통의 사본이다. 이 사본은 1942년 3월 12일자 「大臣(肅軍) 肅軍」 발신자 肅軍軍사령관 히데키의 비밀전보로 「南方總軍」으로부터 보낸 것으로 판정할 위안부 50명을 臺灣에서 모집토록 지시받았다면서 위안부 파견을 위해 위안소 경영자 3명의 「渡航」을 허가해달라

고신청하는 내용이다. 이 3월 16일자 전보(密電)는 이 같은 신청을 인정한다는 陸軍省(陸軍省)의 부관 주수상 겸 위안부 관리 이 肅軍軍참모장에게 보낸 것이다. 「3면에 관련기사」 또 같은해 6월 13일자 肅軍軍참모장이 육군대신 부관으로부터 보낸 전보도 3월에 파견한 위안부가 부족, 추가로 20명을 요구 받았는데 이를 잘 알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육군대신은 도조수상이 점명하고 있었다. 이같이 日帝말기 정부수

의원인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실확인파 피해보상금 지급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1944년 5월 中國 정부의 경비대가 만든 「공안부(公安部)를 위한 「정」 「제2차(二)차」를 위안소로 하고 부대의 부관이 그 업무를 통할 감독 지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또 부대의 「주(主)관」 이 肅軍軍(肅軍軍)을 담당, 위안소의 이용을 감독하고 업무시간까지 정안도록 하고 있다.